

## 國語의 語彙 變化

南 星 祐

(한국외대 교수·국어학)

### I. 序 言

言語는 生物體와 같아서 生滅한다. 龍飛御天歌(1447) 제 2 장의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뭇씨’와 그것의 現代語譯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  
람에 아니 움직이므로’의 비교에서 500여년 간의 언어의 변화를 쉽게 감지  
할 수 있다. 여기서 음운, 형태 및 어휘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 음소  
/ㄹ/가 /아/로 변하였고 형태 ‘불휘’가 ‘뿌리’로 변하였고 [動]의 뜻을  
가진 단어 ‘뒸다’는 소실되었다.

여러 언어 요소들 즉 음운, 형태 및 단어 중에서 가장 변하기 쉬운 것  
이 단어이다. 단어들의 변화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형식의 변  
화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 즉 의미의 변화이다.

中世國語에 [妻]의 뜻을 가진 동의어로 ‘각시, 갓, 겨집’이 있고 近代  
國語에 [妻]를 뜻하는 ‘겨집, 안해’가 있는데 [妻]의 뜻을 가진 중세 국어  
의 ‘각시, 갓’은 없어졌다. 또 중세 국어의 ‘마르치다’는 [敎]와 [指]의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현대 국어에 와서는 意味의 分化가 생겨 ‘가르치다’  
는 [敎]의 뜻으로 남아 있고 ‘가리키다’라는 새로운 형식이 [指]의 뜻을  
가진다. 이 두 경우는 형식의 변화이다.

내용 즉 의미의 변화의 예로 ‘어리다’를 들 수 있다. 訓民正音 諺解의  
‘愚는 어릴 씨라’에서 [愚]의 뜻을 가진 ‘어리다’가 500여년이 지난 오늘  
에는 형식의 변화는 없이 [幼]의 뜻을 가진다.

제 2 장 同義語의 通時的 考察과 제 3 장 意味의 分化는 형식의 변화에  
대한 것이고 제 4 장 意味變化는 내용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 Ⅱ. 同義語의 通時的 考察

### 1. 名詞類의 同義語

#### 〈1〉 각시 對 갓 對 겨집

中世國語의 ‘각시, 갓, 겨집’은 [女]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도 同義關係가 成立되고 [妻]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도 同義關係가 성립된다. [女]가 原義이고 [妻]는 特殊化된 뜻이다.

첫째로 [女]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 성립되는 ‘각시, 갓, 겨집’의 동의 관계부터 고찰해 보자. 예문들 (1)과 (2)에서 ‘각시, 겨집’이 [女]의 뜻을 가진 同義語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 예문들 (3)과 (4)에서 ‘갓, 겨집’이 동작동사 ‘얼이다’와 共起하고 서로 교체가 가능하므로 두 語辭의 동의관계는 잘 立證된다.

세 명사는 의미 범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겨집’은 [女子 일반]을 가리키는데 ‘각시’는 [美女]를 가리킨다. 月印千江之曲 70의 ‘각시 쓰 비엔 큰 벌에 骨髓엔 효근 벌에 미되는 얼원 벌에러니’에서 ‘각시’는 釋迦太子의 正覺을 막으려는 ‘魔王의 예쁘게 꾸민 딸’이다. ‘갓, 겨집’은 (3)과 (4)에서 ‘妻가 될 수 있는 女子’를 뜻한다. 따라서 ‘각시, 갓, 겨집’의 同義關係는 그것들이 [女]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만 部分的으로 성립된다. ‘겨집’은 ‘각시, 갓’을 包攝하고 따라서 ‘겨집’이 後者의 上位語다.

세 명사의 출현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겨집’이 가장 우세하고 ‘갓’이 가장 劣勢에 있다.

- (1) 嫁女는 우문 각시라〈月二28b〉
- (2) 童女는 아히 겨지비니〈月二28a〉
- (3) 給孤獨 長者 | 날굴 아드러러니 여섯 아들란 한마 갓 얼이고〈釋六 13b〉
- (4) 겨집 남진 얼이며 남진 겨집 얼이노라(嫁女婚男)〈觀音 3a〉

둘째로 ‘각시, 갓, 겨집’이 [妻]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도 同義關係가 성립된다. 예문 (7)은 月印千江之曲 部分이고 예문 (8)은 (7)에 相當하는 釋譜詳節 部分이다. [妻]를 뜻하는 명사가 月印千江之曲에서는 ‘갓’인데 釋譜詳節에서는 ‘겨집’이다. 따라서 ‘갓, 겨집’이 同義語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妻]의 뜻으로 ‘각시’의 用例는 극히 드물다. 예문 (6)에서 ‘각시’는 [妻]의 뜻을 가진다.

22 국어생활 '90 가을(제22호)

세 명사의 출현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갓, 겨집’의 빈도수는 대등하나 ‘각시’는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 (5) 妻는 가시라(月一 12a)
- (6) 舍衛國 須達이 婆羅門을 브려 아기아들이 각시를 求하더니(月曲 148)
- (7) 가시 樣 무르시고 눈먼 남 무러시닐(月曲 179)
- (8) 부배 또 무루샤터 네 겨지비 양지 이 獼猴와 엇더뇨( 月七 10b)

近代國語에서 이 동의어들의 양상은 달라진다. [女]를 뜻하는 동의어로 ‘겨집, 간나히’가 있고 [妻]를 뜻하는 동의어로 ‘겨집, 안해’가 있다. ‘겨집, 간나히’가 [女]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것은 예문들 (9)와 (10)에서 잘 확인된다. 그리고 ‘겨집, 안해’의 同義性은 예문들 (11)과 (12)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 (9) 스나히와 간나히 곁히요미 이시며(男女有別)(警民 19)
- (10) 스나히와 겨집의 욕심이(男女情欲)(警民 15)
- (11) 겨지비 닐오더(妻曰)(東國續三孝 23)
- (12) 안해 닐오더(妻曰)(東國新속三孝一 1)

<2> 갓 對 妻

中世國語의 ‘갓, 妻’가 [妻]의 뜻을 가지고 同義關係에 있다는 것은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13) 臣下이 갓돌히 다 모다 夫人 侍衛하사바(月二 28b)
- (14) 傳相 長者의 妻 靑提夫人이 姓은 劉 ] 오 第四 ] 라(月廿三 85a)
- (15) 妻는 가시라(月一 12a)

近代國語에서 固有語 ‘겨집, 안해’는 漢字語 ‘妻’와 同義關係에 있다. 그것들의 동의 관계는 다음의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16) 당명의 겨집이라(張命之妻也)(東國新속三孝八 74)
- (17) 김필의 안해라(金璵之妻也)(同 13)
- (18) 명삼성의 체라(鄭三省之妻也)(同 7)

<3> ㅅ 對 ㅅ니 對 ㅅ 對 ㅅ

중세 국어의 ‘ㅅ’를 비롯한 네 명사는 [時]의 뜻을 가진 동의어들이다.

예문 (19)에서 ‘때’는 ‘쁘’에 處格 ‘-의’가 연결된 것이고 ‘쁘’는 漢字 ‘時’에 상당하는 고유어이다. 예문들 (20)과 (21)에서 ‘때니, 때’가 漢字 ‘時’에 상당하는 고유어임을 알 수 있다. ‘쁘’ 등의 네 명사는 [일반적 시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쁘, 때니’는 特殊化되어 制限된 뜻을 가진다. 예문 (23)에서 ‘쁘’는 하루 중 ‘定해진 時間’을 가리킨다. (24)에서 ‘여섯 때니’는 ‘여섯 쁘’에 대한 細注인데 여기서 ‘때니’도 ‘쁘’와 마찬가지로 ‘定해진 時間’을 뜻한다.

(19) 그 때(爾時)〈金剛 3b, 阿彌 5a〉

(20) 때니며 고디며 불가 날디 아니훈디 업스니(無時無處而不明顯世호니)〈金삼 三 19a〉

(21) 晝 때 爲酉時〈解例 合字解〉

(22) 다 이럭 이십 저근 住劫이라〈月一 47a〉

(23) 밤낮 여섯 쁘로(晝夜六時로)〈月一 47a〉

(24) 밤낮 여섯 쁘로: 여섯 때니는 낮 세 밤 세히라〈月七 65a〉

近代國語에 [時]의 뜻을 가진 동의어로 ‘때, 적’이 있는데 그것들의 同義關係는 예문들 (25)와 (26)에서 잘 확인된다.

(25) 그 때에(時)〈東國新속三孝一 34〉

(26) 그 저기(時)〈東國三忠 3〉

#### 〈4〉 남진 對 사님 對 사옹 對 서방

中世國語에 [夫]의 뜻을 가진 同義語로 ‘남진, 사님, 사옹, 서방’이 있다. ‘남진’은 그 原義가 ‘男子는 남지니라〈月一 8a〉, 善男子는 이든 남지니오〈月七 71a〉’에서 [男子]이나 예문 (27)에서 特殊化되어 [夫]의 뜻을 가진다. 예문 (28)은 ‘其婦小事出行 不白其夫’의 번역이므로 ‘사님’은 ‘夫’에 상당하는 固有語이다.

(27) 寡婦는 남진 업슨 저지비니〈楞六 111a〉

(28) 그 쓰리 조고맛 일로 사님드려 아니 니르고〈月廿二 56〉

(29) 夫는 사오시오〈月一 12a〉

(30) 냥가 들며 서방 마조물 다 婚姻호다 호느니라〈釋六 16b〉

近代國語에서 [夫]의 뜻을 가진 동의어로 ‘남진, 지아비’가 있는데 그

것들의 동의 관계는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31) 남진니 죽거놀(夫歿)〈東國續三烈 13〉
- (32) 저아비 죽거놀(夫歿)〈東國신속三孝三 64〉

〈5〉 드르ㅎ 對 미ㅎ

中世國語에서 [野]의 뜻을 가진 고유어인 ‘드르ㅎ, 미ㅎ’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들의 동의 관계는 다음의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33) 먼 드르홀 咫尺만호가 사랑호노라(曠野懷咫尺)〈杜七 23b〉
- (34) 누른 흙 밧 두들겐(黃泥野岸)〈杜七 28b〉

杜詩諺解에서 두 語辭의 출현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미ㅎ’가 절대적 우세를 보여 준다.

近代國語에 [野]의 뜻을 가진 고유어로 ‘드르ㅎ, 들ㅎ’이 있다. 그것들의 동의 관계는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들’은 ‘드르’의 마지막 母音이 탈락되어 생긴 형식이다.

- (35) 황산 드르헤 니르러(至黃山之野)〈東國신속三忠一 12〉
- (36) 주근 어버이 들헤 이시니(亡親在野)〈東國신속三孝八 47〉

〈6〉 증싱 對 즘싱 對 즘승

中世國語에 [獸]의 뜻을 가진 명사로 ‘증싱, 즘싱, 즘승’이 있는데 그것들의 同義關係는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증싱’은 ‘증싱’의 改新形이다. 杜詩諺解에서의 예문들 (38)과 (39)에서 ‘증싱, 즘승’이 共存함을 알 수 있다.

- (37) 뒤헤는 모던 증싱(後有猛獸)〈龍 30〉
- (38) 새와 즘싱이 굶브렛 누니(鳥獸伏)〈杜八 59〉
- (39) 즘승 向호음 썰리 호되 말라(莫…向禽急)〈杜廿二 51b〉

近代國語에서 [獸]의 뜻을 가진 ‘증싱, 즘싱, 즘승’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들의 동의 관계는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40) 증싱을 잡음(取獸)〈警民序 2〉
- (41) 즘싱의게서 다르기논(異乎禽獸者)〈警民 21〉

(42) 증승이 이셔(有物)〈東國新속三孝一 12〉

## 2. 動詞類의 同義語

〈1〉 괴다 對 듯다 對 사랑하다

中世國語에서 ‘괴다’ 등의 세 동작동사는 [愛]의 뜻을 가진 同義語이다. 그것들은 [+人間]을 目的語로 취하는 경우에 同義關係에 있다. 예문 (43)에서 ‘괴다’는 [+人間]인 ‘人’을 目的어로 가지고 (44)에서 ‘듯다’는 [+人間]인 ‘선비’를 目的어로 하고 (45)에서 ‘사랑하다’는 [+人間]인 ‘子息’을 目的어로 취한다.

(43) 괴여 爲我愛人〈解例 合字解〉

(44) 선비를 ㄷ수실씨(且愛儒士)〈龍 80〉

(45) 아버지 子息 사랑호든 아니 한 사이어니와(釋六 3b)

세 동작동사의 意味範圍는 그것들의 統辭的 選擇制約을 고찰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

첫째로 ‘괴다’는 [+人間]만을 目的語로 가진다. ‘아소 님하 도람드르샤 괴오쇼셔〈樂軌 鄭瓜亭〉’에서 ‘괴다’의 目的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作者인 ‘鄭叙’이고 ‘괴시란더 우러곰 좃니노이다〈樂章 西京別曲〉’에서 ‘괴다’의 目的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作者인 ‘自己’이다. ‘괴다’는 鄭瓜亭에서는 君臣의 사랑을 표현하고 男女相悅之詞인 西京別曲에서는 異性間的 戀情을 나타낸다. ‘아소 님하 어마님 마티 괴시리 업세라〈樂章 思母曲〉’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뜻한다. 요컨대 ‘괴다’는 上下의 사랑을 말할 때 즉 身分이 높은 사람이 낮은 身分의 사람을 사랑할 때 사용된다.

둘째로 ‘듯다’는 (44)에서 [+人間]인 ‘선비’를 目的어로 하고 생략되어 있지만 主語로 ‘李太祖’를 가진다. 이 경우 ‘듯다’는 君臣의 情을 나타낸다. ‘子息을 ㄷ수사 正法 모르실씨〈月曲 125〉’에서 ‘듯다’의 目的어는 [+人間]인 ‘子息’이고 主語는 생략되어 있지만 ‘淨飯王’이다. 이 경우 ‘듯다’는 上下의 사랑을 나타낸다. ‘듯다’는 [+人間]을 目的어로 가질 뿐만 아니라 具體物과 抽象物도 目的어로 취할 수 있다.

셋째로 ‘사랑하다’는 (45)에서 父母와 子息의 사랑을 나타낸다. ‘獼猴王이 널오더…八萬四千 夫人이 이쇼더 글란 사랑티 아니코〈月七 17〉’에서 [+人間]인 ‘八萬四千 夫人’을 目的어로 하고 생략된 主語 ‘迦尸王’을 주어로 하는 ‘사랑하다’는 男女間的 사랑을 나타낸다. 요컨대 ‘사랑하다’는

上下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사랑하다'는 [+인간]뿐만 아니라 具體物과 추상물을 목적어로 가질 수 있다.

近代國語에 [愛]의 뜻을 가진 동작동사로 '괴다, 사랑하다'가 있는데 그것들의 同義關係는 [+인간]이 목적어인 경우에 성립된다.

'괴다'의 용례는 松江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님하나 날 괴시니<思美人曲 54>, 님 괴려 하고<短歌篇 129>.

'사랑하다'가 [+인간]을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 목적어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너계(姪)<東國續三忠 2>, 어버이(親)<東國신속三孝 三 87>, 아(弟)<警民 4>.

둘의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사랑하다'가 '괴다'보다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또 통사상의 統合關係를 조사해 보아도 '사랑하다'가 훨씬 다양하다.

## <2> 굿다 對 멋다 對 모럴다 對 사오납다

中世國語에서 '굿다' 등의 네 상태동사는 [惡]의 뜻을 가진 동의어이다. 예문들 (46), (47) 및 (48)에서 '굿다, 멋다, 모럴다'가 [惡]을 뜻하는 상태동사라는 것이 잘 확인된다.

(46) 三惡道는 세 구즌 길히니<月七 67a>

(47) 惡趣는 머즌 길히니<釋九 10b>

(48) 惡은 모럴 씨라<月一 16b>

同義의 分析法인 代置法과 反義語 사용법에 의해 네 상태동사의 同義性을 확인할 수 있다. 예문들 (49)~(52)에서 네 상태동사는 '똥다'의 반의어로 [-구체물]인 '일'과 共起하고 서로 代置될 수 있다. (50)과 (52)에서 '멋다, 사오납다'는 '똥다'의 反義語로 [+구체물]인 '몸'과 共起하고 서로 대치될 수 있다.

(49) 들읻 衆生이 도호며 구즌 이를 모르고<釋九 11b>

(50) 도호 일 지순 因緣으로 後生에 도호 몸 ㅅ외오 머즌 일 지순 因緣으로 後生에 머즌 몸 ㅅ외야<月二 16a>

(51) 모던 일 보고 도호 일 닻마니논<月一 46b>

(52) 業은 이리니 도호 일 지스면 도호 몸 ㅅ외오 사오나분 일 지스면 사오나분 몸 ㅅ외요미 業果|라<月一 37>

近代國語에 [惡]의 뜻을 가진 상태동사로 '모럴다, 사오납다'가 있는데

그것들의 동의 관계는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53) 아버 모던 병 ㅎ야(父得惡疾)〈東國三孝 3〉  
 (54) 아버 사오나온 병 어더닐(父得惡疾)〈東國續三孝 14〉

〈3〉 두리다 對 모의다 對 쟁다

中世國語에서 [懼, 怖]의 뜻을 가진 ‘두리다’, [畏]의 뜻을 가진 ‘모의다’ 및 [畏, 恐]을 뜻하는 ‘쟁다’가 同義關係에 있다. 예문 (55)에서 ‘두리다’의 목적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전후의 文脈으로 보아 [+有情物]인 ‘羅刹과 毒龍’이다. (56)에서 ‘모의다’의 목적어는 [+유정물]인 ‘범’이고 (57)에서 ‘쟁다’의 목적어는 [+유정물]인 ‘龍王’이다. 요컨대 세 동작동사는 [+유정물]을 목적어로 취한다.

- (55) 그 나랏 王이 두리여 神靈의 비다가 몰ㅎ야(月七 28a)  
 (56) 범 모의여 시러 말 몰ㅎ요라(畏虎不得語)〈杜廿一 39a〉  
 (57) 고지 드라 金翅 드의야 龍王을 저키 ㅎ니(月曲 192)

近代國語에서 ‘두리다, 쟁다’는 [懼, 怖, 畏, 恐]의 뜻을 가진 동작동사로 同義關係에 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죽을 일을 두려(癸 17b) ; 주그를 저허(畏死)〈東國新속三忠一 9〉.

〈4〉 만ㅎ다 對 하다

중세 국어에서 두 상태동사는 [多, 衆]의 뜻을 가진 동의어이다. 그것들의 동의관계는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同一 原文의 번역인 (58)과 (59)에서 두 상태동사는 [衆多]의 뜻으로 [-구체물]인 ‘일’을 共有하고 서로 代置될 수 있으므로 그것들의 同義性은 명백하다. (60)과 (61)에서 두 상태동사는 [+인간]인 ‘百姓’을 主語와 被修飾語로 공유한다.

- (58) 千億 이리 이마리 만ㅎ니(千億事 | 如是衆多ㅎ니)〈法華一 73b~74a〉  
 (59) 千億 이리 이리 하니(釋十三 18b)  
 (60) 百姓도 만ㅎ며(月二 11b)  
 (61) 梵王入 한 百姓 사는 하눌히라(月一 32b)

‘많다’도 [多]의 뜻을 가진 상태동사이다. 예문들 (62)와 (63)에서 ‘많다, 하다’는 [-구체물]인 ‘受苦’를 주어로 공유하고 서로 대치될 수 있

→으므로 그것들의 同義性은 잘 확인된다.

(62) 華色比丘 | 날오더...내 지피 이십 저기 受苦 | 만타라<月十 23a>

(63) 獼猴王이 날오더...受苦 | 하느니<月七 17a~18a>

‘하다’는 ‘만하다, 많다’ 보다 출현 빈도수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만하다, 많다’의 출현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만하다’가 우세하다.

近代國語에서는 두 상태동사 ‘많다, 하다’가 [多]의 뜻을 가진 동의어이다. 그것들의 동의 관계는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두 상태동사의 출현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많다’가 ‘하다’보다 우세하다.

(64) 버힌 거시 마장 많더라(斬甚多)<東國新속三忠一 43>

(65) 베디르고 자븐 거시 심히 하더라(斬獲甚多)<東國新속三忠一 48>

<5> 작다 對 적다 對 흑다 對 혁다

中世國語에서 ‘작다’ 등의 네 상태동사는 [小]의 뜻을 가진 同義語이다. 그것들의 同義關係는 예문들 (66)~(69)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66) 덜 님자히...곧 흘 자근 沙彌를 브러(寺主...即差一小沙彌)<觀音 12b>

(67) 小는 겨글 씨라<月一 6a>

(68) 어르누근 돌흔 효가 돈 곧도다(錦石小如錢)<杜廿 2b>

(69) 小王은 혀근 王이니<月一 20b>

첫 음절의 ‘아~어’ 교체에 의한 ‘작다, 적다’는 ‘키 자꼴씨<釋廿四 8a>’와 ‘키 적도 크도 아니 하고<月一 26b>’에서 主語로 ‘키’(身長)를 共有하고 서로 대치될 수 있으므로 그것들의 同義性은 아주 명백해진다.

첫 음절의 ‘오~어’ 교체에 의한 ‘흑다, 혁다’는 예문 (68)과 ‘磔은 혀근 돌히오<月十 117b>’에서 [+구체물]인 ‘돌흔’과 共起하고 서로 대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상태동사의 同義性은 명백히 확인된다.

近代國語에서는 ‘작다, 적다’가 [小]의 뜻을 가지고 同義關係에 있는데 그것들의 동의 관계는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두 상태동사는 ‘쫄’을 被修飾語로 共有한다.

(70) 등민의 차근 쫄을 안고(抱仲民小女)<東國新속三孝三 7>

(71) 양강왕의 저근 씨리(陽岡王少女)<東國新속三忠一 13>

## 3. 副詞의 同義語

## 〈1〉 모더 對 모로매 對 받드기

中世國語에서 세 부사는 [必]의 뜻을 가진 동의어로 그것들의 同義關係는 다음 예문들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 (72) 굿븐 뉘술 모더 놀이시니(維伏之雉 必令驚飛)〈龍 88〉  
 (73) 必은 모로매 ㅎ는 브디라(正音 13a)  
 (74) 그디 받드기 剖析호물 삼가니라(君必愼剖析)〈杜七 27〉

近代國語에 [必]의 뜻을 가진 부사로 ‘모로매, 받드시, 의식’이 있다. 그것들의 同義關係는 다음 예문들에서 잘 확인된다.

- (75) 모로매 만난 거시 잇게 ㅎ더니(必有甘旨)〈東國續三孝 24〉  
 (76) 이리 이시면 받드시 ㅎ호더라(有事必告)〈東國續三孝 3〉  
 (77) 의식 ㅎ호고(必告)〈東國續三烈 6〉

九雲夢에서 [必]의 뜻을 가진 ‘벽벽이’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벽벽이 이 놓흔 사름이 잇는 줄 알고(九 40).

## 〈2〉 ㅎ마 對 불써 對 이리셔

中世國語에 [既, 已]의 뜻을 가진 부사로 ‘ㅎ마, 불써, 이리셔’가 있다. 같은 原文의 번역인 (78)과 (79)에서 두 부사는 동작동사 ‘세다’를 被限定語로 共有하고 서로 대치될 수 있다. ‘이리셔’는 杜詩諺解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세 부사의 출현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ㅎ마’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 (78) ㅎ마 塔 세며(月十七 37a)  
 (79) 불써 塔 세며(爲已起塔 ㅎ며)〈法華五 201a〉  
 (80) 이리셔 킵브르 먹고(既飽)〈杜十六 62a〉

近代國語에 [既, 已]의 뜻을 가진 부사로 ‘ㅎ마, 불써, 이리’가 있다. 그것들의 동의 관계는 예문들 (81)~(83)에서 잘 확인된다. 세 부사의 출현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이리’가 ‘불써, ㅎ마’보다 우세하고 ‘ㅎ마’가 가장 열세에 있다.

- (81) 기운이 ㅎ마 진 ㅎ니(氣力已盡)〈東國續三烈 19〉

(82) 네 불셔 내 식어미롤 죽여시니(汝既殺吾姑)〈東國新속三孝八 23〉

(83) 이의 내 어미를 주져시니(既殺吾母)〈東國新속三孝八 21〉

〈3〉 호오사 對 호올로

中世國語에서 두 부사는 [獨]의 뜻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獨力으로]와 [아무도 없이 혼자]라는 뜻을 가지고 同義關係에 있다. 두 부사는 (84)와 (85)에서는 [獨力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동작동사 ‘알다’를 한정하고 서로 대치 가능하다. 또 (86)과 (87)에서는 두 부사는 [아무도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行]을 뜻하는 同義語인 ‘가다, 너다’와 共起한다. 따라서 두 부사가 同義語라는 것은 아주 명백히 확인된다. 두 부사의 의미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호오사’가 주로 [아무도 없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호올로’는 주로 [獨力으로]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84) 獨覺은 호오사 알 씨니〈月二 20a〉

(85) 내 호올로 그딛 精神의 充實호몰 아노라(我獨覺子神充實)〈杜七 29b〉

(86) 畢鉢羅樹에 호오사 가십 제〈月曲 66〉

(87) 이 길헤는 호올로 너시니〈月曲 459〉

近代國語에 [獨]의 뜻을 가진 부사로 ‘혼자, 홀로’가 있는데 그것들의 동의 관계는 예문들 (88)과 (89)에서 잘 확인된다. 또 [獨]의 뜻으로 ‘호올로’가 있는데 ‘혼자, 호올로’의 동의 관계는 (90)과 (91)에서 잘 확인된다. 세 부사 즉 ‘혼자, 홀로, 호올로’의 출현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혼자’가 제일 많고 ‘호올로’가 제일 적다.

(88) 혼자 삼년을 너묘하다(獨廬墓三年)〈東國新속三孝一 60〉

(89) 홀로 너묘하야(獨廬墓)〈東國新속三孝四 22〉

(90) 내 엇디 호올로 살리오(我何獨生)〈東國新속三忠一 36〉

(91) 내 엇디 춤아 혼자 살리오(我何忍獨生)〈東國新속三忠一 36〉

Ⅲ. 意味의 分化

中世國語에서 두 개의 뜻을 가졌던 단어들이 근대 국어나 현대 국어에 와서 하나의 뜻만을 나타내고 또 하나의 뜻은 새로운 형식이 떠맡게 된다.

중세 국어의 ‘마르치다’는 ① [敎]와 ② [指]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①

의 예를 들면, 訓은 마르칠 씨오(正音). ②의 예를 들면, 右手左手로 天地 마르치샤(月曲 20). 근대 국어의 ‘마르치다’도 ① [敎]와 ② [指]의 뜻을 가졌다. 현대 국어에서 ‘가르치다’는 [敎]의 뜻으로 남아 있고 [指]를 뜻하는 ‘가리키다’가 생겼다.

중세 국어의 ‘마초다’는 ① [備]와 ② [藏]의 뜻을 가졌다. 예를 들면, 征伐호몰 마초아 호눗다(備征狄)(杜七 25), 제 모몰 마초느니(藏其身)(杜七 24). 그런데 近代國語에는 [備]의 뜻을 가진 ‘마초다’ 또는 ‘글초다’가 있고 [藏]을 뜻하는 ‘곰초다’가 있었다. 예를 들면, 술과 안주 마초와(備酒饌)(東國新속三孝八 65), 만난 거술 글초더니(供甘)(東國新속三孝四 29), 아모 샤허 곰초앗다(藏某地)(東國新속三孝八 57). 현대 국어에 [備]의 뜻을 가진 ‘갖추다’와 [隱]의 뜻을 가진 ‘감추다’가 있다.

中世國語의 ‘마리’는 ① [頭, 首], ② [髮] 및 ③ [首](작품 세는 단위)의 뜻으로 쓰였다. 예를 들면, 首相은 마릿양지라(月八 46a), 마리톨 갖 마시고 누비웃 니브샤(月曲 120), 썰리 짓는 그른 즈른 마리오(敏捷詩千首)(杜廿一 42). 근대 국어에서 [頭, 髮]의 뜻은 ‘머리’가 맡게 되었다. ‘마리, 머리’는 둘다 中世國語에서는 [頭, 髮]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 국어에서 ‘마리’는 짐승이나 물고기의 수효를 셀 때에 쓰인다.

중세 국어의 ‘적다’는 ① [小]와 ② [少]의 뜻으로 쓰였다. ①의 예를 들면, 小는 저글 씨라(月一 6a), 훈 모미 크락 저그락 호야(月一 14b). ②의 예를 들면, 畚은 하며 저구물 되는 거시라(月九 7). [小]를 뜻하는 ‘적다’는 ‘작다’와 동의 관계에 있다. 근대 국어에서도 ‘적다’는 [小]와 [少]의 뜻을 가지는데 [小]의 뜻을 가진 ‘적다’는 ‘작다’와 동의 관계에 있다. 현대 국어에서는 [小]의 뜻을 가진 ‘작다’와 [少]를 뜻하는 ‘적다’가 있어 ‘맞춤법상’ 확연히 구별된다.

#### Ⅳ. 意味變化

國語의 意味變化는 크게 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意味變化의 性質이고 다른 하나는 意味變化의 結果이다.

##### 1. 意味變化의 性質

의미 변화가 일어날 때 옛 의미와 새 의미 사이에 어떤 聯想이 있게 마련이다. 연상은 의미 변화의 필요 조건이 된다.

의미 변화를 그것의 기초가 되는 연상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분석주의적 입장에서 意味(meaning)는 '이름(name)과 뜻(sense) 사이의 상호적이고 可逆적인 관계'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 이 정의가 作業假說로서 작용한다면 의미 변화는 자연히 두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는 뜻들간의 연상에 바탕을 둔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들간의 연상을 포함하는 변화이다.

이 두 범주의 각각은 두 종류의 연상 즉 類似(similarity)와 隣接(contiguity)을 추가하여 하위구분할 수 있다. 두 쌍의 기준에서 생기는 네 개의 의미 변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뜻들의 유사 즉 隱喩, ② 뜻들의 인접 즉 換喩, ③ 이름들의 유사 즉 民間語源, ④ 이름들의 인접 즉 省略.

### 1) 隱 喩

은유의 기본 구조는 아주 간단하다. 언제나 두 개의 項이 존재한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비유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자는 元觀念(tenor)이고 후자는 補助觀念(vehicle)인데 그것들이 공유하는 특징들이 은유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면, '곰'은 원뜻이 [熊]인데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미련한 사람]을 뜻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미련한 사람]은 원관념이고 [熊]은 보조관념이다. 둘의 유사는 轉移의 기초가 되는 공통의 요소이다.

이제 은유가 國語의 意味變化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 예들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중세 국어의 '감투'는 [帽子]의 뜻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감투 모(帽)〈類會上 31〉. 근대 국어의 '감투'도 [帽子]의 뜻을 가진다. 예컨대, 감투(帽子)〈同文上 55〉〈漢 327a〉, 모즈는 감투니〈家禮一 27〉. 현대 국어의 '감투'는 ① 衣冠의 하나를 뜻하지만 추상화되어 ② [벼슬]의 뜻으로도 쓰인다. 예컨대, 감투 싸움.

중세 국어의 '비술'은 [內臟, 腸]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關隔府臟은 비술돌홀 나르니라〈法華二 105b〉, 긴 모드로 모매 박고 비술홀 지지더라〈月廿三 87〉. 근대 국어의 '비알'도 [內臟, 腸]의 뜻을 가졌다. 예를 들면, 제 비알 푸러니여 망양 그물 너러 두고〈靑大 p.92〉. 현대 국어의 '배알'은 ① [腸]의 뜻과 ② [心思, 감정]이라는 추상화된 뜻을 가지고 있다.

중세 국어의 '보람'은 [表迹]을 뜻하였다. 예를 들면, 넷 聖人애 보람로 보미 맛당컨명(宜觀先聖標格)〈蒙 20〉, 보람 부(符)〈訓蒙上 35〉. 근대 국어

의 ‘보람’도 같은 뜻으로 쓰였다. 예컨대, 조고만 보람 지어(三譯八 6),  
므슴 보람이 잇노(有甚麼慌字)(朴重下 7). 현대 국어의 ‘보람’은 ① [表  
迹]의 뜻과 ② [効力]이란 추상화된 뜻을 가지고 있다.

중세 국어의 ‘사랑하다’는 [思]와 [愛]의 뜻을 가진다. 예를 들면, 思는  
사랑홀 씨라(月序 11b); 福을 사랑하야 즐길 씨라(‘福愛天’의 細注)(月一  
33b). 이 동사의 原義는 [思]이고 副義는 [愛]이며 原義인 [思]가 빈도상  
副義인 [愛]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근대 국어에서 ‘사랑’은 [愛]의 뜻  
으로만 쓰인다. 예를 들면, 어마님 사랑을 버리미(棄母慈)(東國三忠 2),  
동심 사랑이 텃성으로 지극하물(友天至)(東國新속三孝三 47). 현대 국어의  
‘사랑’은 [愛]의 뜻으로만 사용된다.

중세 국어에서 [思]의 뜻을 가진 ‘사랑하다’는 ‘能히 외와 생각디 못겨  
든(未能誦憶)(楞七 46a)’에서 [憶]을 뜻하는 ‘싱각하다’와 同義關係에 있  
다. 그런데 근대 국어에 와서 [思]의 뜻은 ‘싱각하다’가 전담하게 되었다.

중세 국어의 ‘어엿브다’는 [불쌍하다(憐)]라는 뜻을 가진다. 예를 들면,  
어엿브신 命終에 甘蔗氏 니스샤닐 大瞿曇이 일우니이다(月曲 5). 그런데  
근대 국어에 와서 ‘어엿브다’는 두 개의 뜻을 갖게 되었다: ① [불쌍하다,  
가엷다], ② [예쁘다, 사랑스럽다]. ①의 예를 들면, 어엿븐 그림재 날 조  
출 썬이로다(續美人曲), 대군이 이연이 불쌍하고 어엿브리오마노(癸 p.  
24). ②의 예를 들면, 하 영민하니 어엿브이다(癸 p. 34). 현대 국어에서  
그 형식은 ‘어여쁘다, 예쁘다’가 되었고 그 의미는 [美麗]이다.

중세 국어의 ‘이바디’는 [宴]을 뜻했다. 예를 들면, 이바디에 머리들 좇  
스븐니(當宴敬禮)(龍 95), 이바디 연(宴)(訓蒙下 10). 근대 국어에서도 이  
것은 [宴]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이바디 못마지에 가디 아나  
터라(不赴宴會)(東國新속三孝五 80). 현대 국어에서 ‘이바지’는 추상화되  
어 [貢獻]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세 국어에서 ‘힘’은 원 뜻이 [筋]인데 추상화되어 [力]이란 뜻을 가진  
다. 예를 들면, 힘 爲筋(解例用字), 힘 근(筋)(訓蒙下 9); 力은 히미라(楞  
一 3). 근대 국어에서는 ‘힘’은 [力]을 뜻한다. 예컨대, 힘이 진하야(力盡)  
(東國新속三孝七 7). 현대 국어의 ‘힘’은 추상화된 뜻인 [力]을 나타낸다.

## 2) 換 喻

환유는 본질적으로 은유만큼 관심거리가 못 된다. 왜냐하면 환유는 새  
로운 관계를 발견하지 않고 서로 이미 관련 있는 단어들 사이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환유가 은유만큼 중요하지 않다 해도 의미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환유는 그것의 기초가 되는 연상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空間의 관계에 바탕을 둔 換喩的 轉移이고, 둘째는 時間的 관계에 바탕을 둔 환유적 전이이다.

공간적 관계에 바탕을 둔 환유적 전이의 예로 중세 국어 '가개'를 들 수 있다. 중세 국어의 '가개'는 [시령(棚)], [차양 또는 차일(凉棚)]을 뜻한다. 예컨대, 가개(凉棚)〈四解下 59〉, 가개 봉(棚)〈訓蒙中 5〉. 이것은 근대 국어에서도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가개(凉棚)〈譯上 17〉. 그런데 차양 또는 차일 밑에서 露店 비슷한 것을 내었기 때문에 현대 국어 '가개'는 길가에서 물건을 파는 집이 되었다.

시간적 관계에 바탕을 둔 환유적 전이로 중세 국어의 '삐'가 있다. '삐'는 [時, 時間]의 뜻을 가진 'ㅍ'의 主格形이다. 예를 들면, 이 삐 ㅁ술와 겨술왓 시기로소니(是時秋冬交)〈杜八 59〉. 근대 국어의 '끼'는 ① [時]와 ② [食時]의 뜻을 가진다. 예컨대, 혼 씨로다(同時)〈杜重十一 27b〉; 혼 씨 밥쌀과(一頓飯的米)〈老上 47〉. 현대 국어의 '끼'는 중세 국어의 의미를 상실하고 특수화되어 [食事, 食事時間]의 뜻으로만 한정된다.

### 3) 民間語源

민간어원은 한 단어를 그것과 음성상 유사한 또 다른 단어와 잘못 결부시키므로써 그 단어의 형식과 의미를 둘다 변화시킬 수 있다.

중세 국어의 '힝즈초마'는 민간어원에 의해 '幸州치마'가 되었다. 言衆은 그 語源을 알지 못하게 된 '힝즈'를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地名 '幸州'에 결부시키고 壬辰倭亂 때의 史實을 결부시켜 '힝즈초마'를 [幸州 싸움에 사용된 치마]라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힝즈'와 '힝즈초마'는 訓蒙字會에 나타난다: 俗呼 힝즈曰抹布〈訓蒙下 20, '抹'註〉, 힝즈초마 호(帟)〈訓蒙中 13〉.

중세 국어의 '아춘설'과 근대 국어의 '아춘설'은 [설달그믐]을 뜻한다. 여기서 '아춘'은 [작은]이란 뜻이다. 예컨대, 아춘설날(歲暮)〈分은〉, 아춘설(暮歲)〈譯上 4〉. 현대 국어 '까치설'은 '아춘'이 '까치'로 변하여 생긴 것이다. '아춘'의 본뜻이 不分明하고 그 발음이 不分明해진 결과 \*아츄, \*아츠, \*아치와 같은 발음이 흔히 나타나게 되었는데, \*아치와 같은 발음은 七月七夕의 전설로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여 우리에게 매



단어가 그 집단의 영역을 넘어 더 널리 사용될 수도 있다.

### (1) 意味의 縮小

한 단어가 가지고 있던 내포(connotation)가 더 풍부해지면서, 그 단어의 적용 범위 즉 外延(denotation)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의 축소라고 한다.

축소의 가장 흔한 원인은 특정 사회 집단에 있어서의 의미의 特殊化이다. 그것은 단어의 범위 전체를 영구히 줄일 수도 있다. 축소의 또 하나의 원인은 禁忌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反語에 의해서 축진되는 변종을 포함하는 婉曲法이다. 의미의 축소는 생각에서, 어휘에서의 간극을 메울 필요에서 그리고 여러 다른 원인에서 생길 수도 있다.

국어에서 의미의 축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를 구체적 예들에서 고찰해 보자.

이미 보았듯이 중세 국어의 ‘때’는 [時, 時間]을 뜻하였고 근대 국어의 ‘씨’는 ① [時]와 ② [食時]를 뜻하였고, 현대어 ‘끼’는 [食事, 食事時間]을 뜻한다. 여기서 時→食事時間으로 特殊化되어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다.

중세 국어의 ‘놈’은 [사람의 平稱]이었다. 예컨대, 者는 노미라<正音>, 떠디 묻흙 노미 하니라<正音>, 그런데 근대 국어의 ‘놈’은 多義的으로 사용되어 ① [사람의 平稱]과 ② [男子의 卑稱]이었다. ①의 예를 들면, 온놈이 온 말을 하어도<松江 142>, 어린 놈 웅벽이를 극형 하야<癸 p. 83>. ②의 예를 들면, 모든 놈들히 상궁을 썬서 드러미러 보고<癸 p. 175>. 현대어의 ‘놈’은 [男子의 卑稱]이다. 중세 국어의 ‘놈’은 [사람의 平稱]에서 [男子의 卑稱]으로 特殊化되었다.

중세국어 ‘되’는 [밥, 진지]의 뜻을 가졌다. 예컨대, 산것 주겨 眷屬 외홀썬 <月廿一 125>, 文王이 혼번 되 자서든<文王一飯><小諺四 12>. 月印釋譜의 용례 ‘되홀썬’의 ‘되하다’는 [밥먹이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뜻으로 쓰였고 명사 ‘되’는 [윗사람의 밥]을 지시했다. 현대 국어에서 ‘메’는 그 적용 범위가 좁아져서 [제사 때 신위 앞에 올리는 진지]에 국한해서 사용된다.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빈혀’는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男女의 머리에 쫓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빈혀 줌<訓蒙中 24>, 玉빈혀<譯上 44>. 그런데 현대어의 ‘비녀’는 [婦人の 쪽진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쫓는 제구]가 되었다.

중세국어의 ‘셔블’은 용비어천가에서 [首都]의 뜻으로 쓰였다. 예컨대,

서발 使者를 씨리샤(憚京使者). ‘서발’의 後身인 ‘서울’도 중세 국어의 근대 국어에서 [首都]의 뜻이었다. 중세 국어의 예를 들면, 두 서울 설흔 사림이(兩京三十口)〈杜八 36〉, 西京이 서울히 마르느(樂章 西京). 근대 국어의 예를 들면, 서울 상계 삼십 나라(去京都三十里)〈東國新述三孝一 63〉. 여기서 ‘서울’은 구체적으로 [고려의 수도]를 가리킨다. 현대어의 ‘서울’은 ① [首都]와 ② [우리 나라의 國都]를 뜻한다. [首都]가 [우리 나라의 國都]로 特殊化된다. 다시 말하면 普通名詞가 固有名詞로 된 것이다.

訓民正音諺解의 ‘愚는 어릴 씨라’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 ‘어리다’는 [愚]의 뜻이었는데 근대국어에 와서는 多義의으로 사용되어 ① [愚]와 ② [幼]를 뜻했다. ①의 예를 들면, 어린 빅성이(愚之民)〈警民序 2〉. ②의 예를 들면, 열두 솔로서 아리로 어린 겨집을 通奸하면(十二歲以下幼女通奸則)〈警民 15〉. 현대어의 ‘어리다’는 特殊化되고 축소된 의미 [幼]로만 쓰인다.

중세 국어의 ‘얼굴’은 [形體]의 뜻을 가졌다. 예컨대, 相은 얼구리라(月序 1), 形體는 얼구리라(月二 70a), 얼굴 형(形)〈訓蒙上 24〉. 근대 국어에서 ‘얼굴’은 [形體]의 뜻뿐만 아니라 [顔]의 뜻도 가졌다. [形體]의 뜻으로 쓰인 예를 들면, 어의 얼굴이 곧거늘(似母形)〈東國新述三孝一 6〉. [顔]의 뜻으로 쓰인 예를 들면, 얼굴(容顏)〈同文上 18〉. 현대 국어의 ‘얼굴’은 特殊化되어 [顔面]의 뜻으로 쓰인다.

중세 국어에서 [顔面]을 뜻하는 단어로 ‘낯’이 있었는데, 중세 국어에서 [形體]를 뜻하던 ‘얼굴’이 현대 국어에 와서 [顔面]을 뜻하게 되자 현대 국어 ‘낯’은 卑俗語로 되었다.

## (2) 意味의 擴大

의미의 확대가 의미의 축소보다는 덜 흔한 과정이라는 것이 여러 언어 학자들의 주장이다. 순수히 논리적 관점에서 확대는 축소의 정반대이다. 여기서 단어가 아주 다양한 사물에 적용되므로 외연은 증가하고 그 내포는 감소할 것이다.

국어에서 의미의 확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를 구체적 예들에서 고찰해 보자.

중세 국어의 ‘갓나히’는 [童女]의 뜻을 가진다. 이것은 ‘童子聲 童女聲’의 번역인 ‘사히 소리 갓나히 소리’〈釋十九 14〉에서 잘 확인된다. ‘갓나히’의 後身形인 근대 국어의 ‘간나히’는 [女子]를 뜻하였다. 예를 들면,

스나히와 간나히 곁히요미 이시며(男女有別)〈警民 19〉. 여기서 [童女]에서 [女子]로의 의미의 확대가 생긴다.

근대 국어의 '겨레'는 [宗族, 親戚]을 뜻하였다. 예컨대, 겨레 권당으로 서 서르 통간하면(親屬相奸)〈警民 15〉, 겨레 사랑하기를 숭상하며(崇宗族之愛)〈警民 25〉. 그런데 현대 국어의 '겨레'는 [民族, 同族]의 뜻으로 확대되었다.

근대 국어에서 '마노라'는 [貴人の 경칭]으로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졌다. 癸丑日記에서는 [宣祖], [仁穆大妃] 및 [光海君]을 뜻한다. 현대어의 '마누라'는 [妻]의 뜻으로 쓰인다. 결국 [貴人の 경칭]이 [妻]의 뜻으로 확대된 것이다.

중세 국어의 '사히'가 [童子]의 뜻을 가진다는 것은 '童子聲 童女聲'의 번역인 '사히 소리 갖나히 소리'〈釋十九 14〉에서 잘 확인된다. 근대 국어의 '스나히'는 [男子]의 뜻을 가진다. 예컨대, 스나히와 간나히 곁히요미 이시며(男女有別)〈警民 19〉. '스나히'의 후신형인 현대 국어의 '사나이'는 [男子, 壯丁]을 뜻한다.

중세 국어의 '오랑캐'는 '我國之俗 通稱幹東等處 兀良哈 오랑캐 兀狄哈 우디거'〈龍一 7〉에서 '幹東等處'를 가리킨다. 이것은 麗末 鮮初에 지금 만주에 있던 한 종족의 명칭이었다. 그러나 '오랑캐'는 근대 국어에서 예컨대 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7)의 '계미년 오랑캐 난의(於癸未胡亂)〈三孝五 45〉'에서 [胡]의 뜻을 가지고 있고 현대 국어에서도 [胡]의 뜻으로 사용된다.

중세 국어의 '온'은 [百]의 뜻을 가졌고 漢字語 '百'과 同義 관계에 있었다. 예컨대, 온 사릅 ㄸ리샤(遂率百人)〈龍 58〉, 온 빅(百)〈訓蒙下 34〉 근대 국어에서 '온'은 ① [百]과 ② [全]의 뜻으로 쓰였다. ①의 예를 들면, 온갓 고은 티되(百態)〈九雲夢 p.96〉. ②의 예를 들면, 온 궁둥이 새 로이 요란하여(癸 p.144), 온 몸이 프르고(遍身皆靑)〈九雲夢 p.214〉. 현대 국어의 '온'은 [全]의 뜻으로 쓰인다. 예컨대, 온 세상.

중세어의 '젊다'는 [幼]의 뜻이었다. 예컨대, 羅雲이 저머서 노르솔 즐겨(釋六 10). 근대 국어에서 '젊다'는 ① [幼]와 ② [年少]의 뜻을 가졌다. ①의 예를 들면, 나히 저머서 아비 죽거늘(幼年喪父)〈東國續三孝 21〉. ②의 예를 들면, 최시 나히 젊고 ㅈ식이 인더니(崔年少有姿色)〈東國三烈 2〉, 저머서 남진 죽거늘(早喪夫)〈東國續三烈 12〉. 현대어의 '젊다'는 [20세 전후의 年少]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중세 국어에서 [愚]의 뜻을 가졌던 ‘어리다’와 [幼]의 뜻을 가졌던 ‘젊다’는 근대 국어에 와서 둘다 [幼]의 뜻을 갖는 同義語가 된다. 현대 국어에서는 ‘어리다’는 [幼]의 뜻으로 남고 ‘젊다’는 [20세 전후의 年少]란 뜻을 가진다.

## 2) 評價의 變化

### (1) 墮落的 發達

타락적(pejorative) 발달은 언어에서 아주 흔하기 때문에 초기의 몇몇의 미론자들은 그것을 기본적 경향이라고 즉 인간 심리의 ‘悲觀的 傾向’의 징후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에 반대 입장을 취한 학자는 브레알(Bréal)이다. 그는 “소위 타락적 경향은 우리로 하여금 난처하고, 失禮되거나 불쾌한 생각들을 감추고 숨기게 하는 매우 인간적 태도의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타락적 발달을 일으키는 첫째 요인으로 婉曲法을 들 수 있다. 만일 완곡적 代用이 이런 것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면, 만일 그것이 감추려고 한 생각과 직접 연상되면, 의미의 永久的 下落이 생길 수 있다. 타락적 뜻 변화를 일으키는 제 2의 요인은 어떤 연상들의 영향이다. 타락의 발달의 제 3의 요인은 여러 가지 형의 인간의 偏見이다. 넷째로 어떤 계급과 직업에 대한 社會的 偏見도 타락적 발달의 원인이다.

中世語의 ‘겨집’은 원뜻이 ① [女子]인데 特殊化되어 ② [妻]의 뜻으로 쓰인다. ①의 예를 들면, 女子는 겨지비라<月一 8>, 겨집 녀(女)<訓蒙上 31>. ②의 예를 들면, 如來 太子入時節에 나를 겨집 사모시니<釋六 4>, 겨집 처<訓蒙上 31>. 근대 국어의 ‘겨집’ 또는 ‘계집’도 ① [女子]와 ② [妻]의 뜻을 가졌다. ①의 예를 들면, 스나희와 겨집의 욕심이(男女情欲)<警民 15>, 남진 인는 계집을 和奸하면(有夫女和奸則)<警民 15>. ②의 예를 들면, 남진과 겨집이 은혜 이시며(夫婦有恩)<警民 19>, 계집은 모로미 지아비를 順종하야(妻須順夫)<警民 2>. 현대어의 ‘계집’은 그 의미가 下落되어 경멸적으로 쓰이고 있다. 卑語로 ‘계집년’도 있다.

중세어의 ‘낯’은 [顔面]을 뜻했고 근대 국어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였다. 예컨대, 菩薩入 衲 金色이오<月八 35>, 衲 出 화회 하야(和顔)<東國新書 三孝六 42>. 그런데 현대어의 ‘낯’은 卑俗語로 떨어졌다.

위에서 보았듯이(의미의 축소 참조) 중세 국어의 ‘놈’은 [사람의 平稱]이었는데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에 와서는 [男子의 卑稱]으로서 경멸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타락적 발달의 適例다.

의미의 확대에서 보았듯이 근대 국어의 '마노라'는 [貴人の敬稱]이었는데 현대어의 '마누라'는 [妻]의 卑稱쯤으로 쓰인다. 이것은 의미의 하락이다.

역사적 존칭어가 일반화되고 경멸적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조선 시대에 존칭으로 쓰인 公主, 兩班, 令監, 主事 등은 본래의 뜻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롱과 역설로까지 발달되었다.

전문 용어가 일반화되어 그 의미가 下落할 수 있다. '外道'는 불교 용어로 [불교 이외의 다른 교]를 뜻하였는데 현재는 [外淫]의 뜻으로 하락하였다.

(2) 改善的 發達

타락적 발달의 정반대가 改善的 發達이다. 개선적 발달은 타락적 발달보다 덜 주목을 받았고, 대체로 그것은 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된다.

개선적 발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향상이 순수히 소극적인 경우다. 점진적 약화의 과정에 의해 불쾌한 뜻을 가진 단어가 그 汚名의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의미가 적극적으로 향상될 수도 있다. 둘째로 개선적 발달은 社會的 要因에서 생길 수 있다. 겸손하거나 심지어 천한 관직이 점차 위신이 향상될 수 있고 결국 계층의 頂上이 될 수도 있다.

개선적 발달의 예로 '匠人'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비천한 계급을 나타내는 단어였다. 뒤에 撥尾辭로 된 '장이'는 비천한 신분을 나타내었다. 예컨대, 대장장이, 땀장이, 미장이, 석수장이. 그러나 현재는 이것은 그 의미가 格上되어 쓰이고 있다. 예컨대, 멋장이, 안경장이. □

國語 引用資料 目錄

略號

- 〈解例〉 解例本 訓民正音(1446)
- 〈正音〉 諺解本 訓民正音(144?)
- 〈龍〉 龍飛御天歌(1447)
- 〈釋〉 釋譜詳節(1447)
- 〈月曲〉 月印千江之曲(1449)
- 〈月〉 月印釋譜(1459)

- 〈蒙〉 蒙山和尚法語略錄(世祖朝刊)  
 〈楞〉 楞嚴經諺解(1462)  
 〈法華〉 法華經諺解(1463)  
 〈金剛〉 金剛經諺解(1464)  
 〈阿彌〉 阿彌陀經諺解(1464)  
 〈杜〉 杜詩諺解(1481)  
 〈金谷〉 金剛經三家解(1482)  
 〈觀音〉 觀音經諺解(1485)  
 〈樂軌〉 樂學軌範(1493)  
 〈樂章〉 樂章歌詞(中宗祖刊)  
 〈四解〉 四聲通解(1517)  
 〈訓蒙〉 訓蒙字會(1527)  
 〈分宅〉 分門瘟疫易解方(1542)  
 〈類合〉 新增類合(1576)  
 〈小諺〉 小學諺解(1588)  
 朴晟義 註解(1973), 增補 松江歌辭, 正音社。  
 〈東國〉 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7)  
 〈家禮〉 家禮諺解(1632)  
 〈警民〉 警民編諺解(1656)  
 〈老〉 老乞大諺解(1670)  
 〈朴重〉 朴通事諺解重刊(1677)  
 〈譯〉 譯語類解(1690)  
 〈癸〉 姜漢永 校註(1960), 癸丑日記, 新古典社。  
 〈三譯〉 三譯總解(1703)  
 〈青〉 青丘永言(1728)  
 〈同文〉 同文類解(1748)  
 〈九〉 鄭炳昱·李承旭 校註(1972), 九雲夢, 民衆書館。  
 〈漢〉 漢清文鑑(英祖末年 頃刊)

## 參 考 文 獻

- 南星祐(1985), 國語意味論, 永言文化社。  
 \_\_\_\_\_(1986), 十五世紀 國語의 同義語研究, 塔出版社。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劉昌惇(1971), 語彙史研究, 宣明文化社。  
 全在昊(1987), 國語語彙史研究, 慶北大學校出版部。